

한국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진입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명자

(김해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

한국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진입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명자

(김해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 2.2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징
 - 2.2.1 언어적 측면
 - 2.2.2 문화적 측면
 - 2.2.3 정서적 측면
3.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 3.1 초기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
 - 3.2 예비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구성
4.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 진입의 장벽
5.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kim Myeong Ja. 2020. 1. 6. **A Study on the problem of entering public education for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5, 33-54. Based on the experiences of youth who went on to public education and factors for adapting to public education this study believes that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reparatory schools by revealing the factors of their impact on entering public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n the factors of their experiences in preliminary schools and how their experiences in preliminary schools affect public education adaptation. Until now, a proper status survey has not been conducted in Korea. becaus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accurate statistics due to the diverse statu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cooperation from government ministr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hould conduct a nationwide survey on the status of youth and make accurate statistics. The expansion of multicultural pre-schools is needed to help multicultural youth enter public education. **(Healthy Famil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f Gimhae Office)**

[Key words] Middle Admission Youth, Public Education, Multicultural Reserve School, Multicultural families

1. 서론

오늘날 ‘다문화’ 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슈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우리사회의 큰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2019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2.50% 수준인 13만7225명이다, 2015년 8만2536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5만여 명 증가했다. 이중 국내 출생 학생 수는 10만 8069명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도입국 학생은 8697명이다. 2012년 이후 한국의 학생 수는 18만 명 이상씩 연평균 감소한 반면, 다문화학생은 1만 명 이상씩 증가하여 2012년 0.7%에서

2018년 2.2%로 3배 이상이다(news.kbs.co.kr). 초등학생의 경우 3.4%에 달하며, 유형별로 국내출생 자녀가 80% 이상이며, 2015년을 기점 상급학교에 올라 갈수록 중도입국 자녀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초 5.4%, 중 10.7%, 고 12.2%).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76.2%로 가장 많으며, 중학생이 14.8%, 고등학생 9.0% 순으로 모든 학교 급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국회입법 조사처, 다문화학생 현황공개, 2018). 다문화학생은 비 다문화학생에 비해 취학률은 낮고 학업 중단율은 높아진다, 학교 급이 올라 갈수록 그 격차가 커져 고등교육의 진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입학 합격자율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0.9%이고 상급 학교일수록 격차가 높아 저 중학교 2.8%, 고등학교 3.6% 이며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14.8%이다. 학업중단율 격차는 2016년 기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0.18% 차이로 미미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 1.16% 이고 전체 중학생이 0.61% 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교육을 받지 않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비율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소 2016).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를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13.3.29.)가 발표했다. 「다문화학생교육 선진화 방안」은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 학교 밖의 다문화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학교 안으로 유도하며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국적 취득 시부터 입학 절차 안내, 교육청에는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입학 상담부터 학교 배치, 사후관리까지 입학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선은정 2015).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지원책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정책 추진의 미진함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부처 모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지적이다. 또한, 중도일보(2014)의 보도에 의

하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미비로 10대 후반 중도입국자녀와 18세 이상의 중도입국자녀들이 국내 고등교육의 정규입학에 진입하지 못하므로 공교육 진입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갑자기 입국 되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한국어 학습, 기본생활 등에 문제점이 있다. 이 또한 언어 문제로 장기간 집에서만 생활하는 예가 많아 교육의 공백이 커지게 된다.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들은 한국 안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소외감에 휩싸이기 쉽고 이는 곧 입학 자체의 포기, 중도포기,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불안감 혹은 적대감, 외부와의 관계 단절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이병철·송다영 2011: 132).

본 연구는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과 공교육 적응 요인을 바탕으로 예비학교에서의 경험이 공교육 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예비학교에서의 경험이 공교육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공교육 진입의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배경 및 목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이론적 개념과 한국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진입의 장벽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헌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자 연구를 수행 한다. 제 IV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공교육 진입의 장벽요소를 도출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 V 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과 함께 한국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진입의 문제점과 현재의 다문화 교육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적응 양상을 이해함

으로써 공교육 진입에 앞서 예비학교의 역할이 교육적 본질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판단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념

2015년을 기점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은 학령기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청소년을 가리키며, 이들은 대체로 조부모나 친척과 함께 자국에서 살다가 부모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갑작스럽게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청소년의 시기에 낯선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교육부(2019)의 다문화교육 지원 방안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의 정책 대상은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로 분류되고, 국제결혼가정자녀는 다시 국내 출생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장영미 2017).

<표 1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형>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어휘나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존재 ▪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적 정서적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인 경우,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와 새로운 가족과

		의 적응,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한국어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의 어려움이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동포2세, 3세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정주여건의 불안정으로 본국을 방문하거나 비자 연장으로 인하여 지속적 학업이 어려운 존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출처: 교육부 통계, 2019 저자 인용

<표 2 다문화학생 통계>

단위: 명, % / 기준:18.4.1.

구분	유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학교 급	초	76,201	5,046	11,869	93,116
	중	13,617	1,933	2,577	18,127
	고	8,445	1,341	1,183	10,969
부모 출신 국	중국*	26,681	3,905	9,136	39,722
	베트남	34,012	1,187	369	35,568
	필리핀	13,156	663	274	14,093
	일본	9,308	893	162	10,363
	기타*	15,106	1,672	5,688	22,466
합계		98,263	8,320	15,629	122,212

출처: 다문화 교육법안 (안민석 의원 등 13인), 2019 저자 인용

성상환 외(2010)와 전경숙 외(2012)는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 후

본국의 자녀를 입양시키거나 함께 지내기 위해 입국시키는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경우 또한, 조옥이·박석준(2011: 219)은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 현지에서 거주 중이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국내 입국 후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인 자녀로 입양하여 초청하는 경우와 국적 회복을 한 동포 1세의 3세가 2세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¹⁾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입국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어느 정도 성장 후 입국하는 경우를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김민지 2017).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문헌을 분석할 때,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우 유사한 수준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의로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교육과학기술부 2012),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 현지에서 거주 중이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성상환 외 2010; 전경숙 외 2012)와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 현지에서 거주 중이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조옥이·박석준 2011: 219)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2.2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징

2.2.1 언어적 측면

다문화 가정 자녀는 크게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하며 다시 국내 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한다. 이는 201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의 정책대상

1) 2005년부터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및 취득증가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조옥이·박석준, 2011: 219).

이다.

한국으로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학령기의 학생이 정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받아야 하지만 공교육 진입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 더욱이 한국에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과정이 있는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교과 수업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미선 2010; 조영달 외 2006).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자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교과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본다. 또한 한국의 은어나 속어, 한국인의 빠른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공교육에 입학하더라도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소라(2012:9-20)는 한국에서 학습적령기의 학습이 성취되지 못하고 언어적 발달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교과 지식에 대한 결손이 교육적 공백으로 이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모국어를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이주 후, 한국어 능력 저하와 함께 동반되는 학업 부진이라는 문제를 겪을 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과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교과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공백기를 최대한 줄이고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영권(2012: 22-23)은 언어적 특성은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학업적 측면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전체적으로 보통수준 이하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 또한 학교 수업에서 한국어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를 포함한 말하기, 쓰기, 읽기 교재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 관련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여 대체적으로 관련수업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생활에서의 언어 문제가 대인관계에서의 소통 단절, 학업 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부정적인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2.2.2 문화적 측면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최근 국적과 인종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증가추세의 외국인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 또한 과도기 현상을 겪게 된다. 이기숙(2008)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기까지 지내며 갑작스럽게 부모의 요청에 의해 타국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적대감, 좌절감, 분노, 우울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된다고 밝혔다. 홍종명(2014: 436)은 학습동기와 한국 거주 기간별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한국 거주 기간이 1~2년에 해당하는 집단은 문화적 언어적 아노미 단계²⁾에 해당된다고 한다. 양계민·조혜영(2011: 213)은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대부분은 정체성 혼란을 느끼고 자국의 국가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³⁾ 문화적 단절로 인한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이지만 이들의 문화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가 한국의 공교육 기관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다.

2) Brown(2007: 195)에 따르면 제2언어 습득과 문화 접촉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흥분과 도취 단계를 거치고 이어서 문화적 차이를 인지함에 따른 인지적, 정의적 모순을 경험하는 단계로 넘어가며, 이후 일시적인 동요 후 점차 회복하는 단계를 겪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수용, 적응, 동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중 두 번째 단계를 아노미(anomie) 단계, 즉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 문화와의 유대감을 잃어버리고 제2언어권에 적응하게 되면서 새로운 집단으로 들어서는 데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또는 유감을 갖게 되는 단계로 설명하였다.

3) 정체성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동일시, 소속감 등을 말하는 것이다 (조혜영, 2012).

2.2.3 정서적 측면

타의에 의한 문제로 겪게 되는 정서적 문제의 경우는 한국에서의 생활의 적응 측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심층적으로 살펴볼 요인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은 타의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는 청소년기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속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게 하는 저해 요인이다.⁴⁾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낮은 문화권에 거주하며 부딪히는 의사소통의 소외감, 문화적 충격,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 또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문제가 언어라는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한국어능력 부족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좌동훈(2014). 또한 대체로 재혼가정의 동반자녀이므로 입국함과 동시에 낮은 가족구성원으로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한국인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교육적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은 고립감과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만나게 된다(김민지 2017). 이는 곧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포기 또는 학교 중도 이탈로 인하여 부정적인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입국 초기 적응에서 정서적 문제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공교육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고 더 나아가 학교 부적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4)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부담을 주는 일상적 상황들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 정서 경험이나 정서적 불안정성이 가중 되는 시기이며, 청소년들은 불안, 분노,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박자순, 2015: 1-2).

3.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관

타인에 의하여 이주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공교육 진학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 선택이 아닌 이주로 인하여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여전히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다문화가정학생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기관으로 학교지원과 입학 전 예비과정 지원 및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김민지 2017). 단기간에 학교 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 내에 특별학급을 구성하여 별도 지원을 하도록 하며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무지개청소년센터 활동보고서 2011).

언어나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입국 초기 적응지원과 학교와 사회, 진로, 진학 등에 대한 교육적 지원 대책 마련이 미미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

3.1. 초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 초기 적응을 위해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 다문화 예비학교인 ‘무지개청소년센터’⁵⁾가 대표적이다(여성가족부 2011). 무지개청소년센터는 2006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위기상황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낮

5)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및 문화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립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재단법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김흥기, 2015: 16-17).

선 환경으로 이주해온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 기본적인 지식, 정보와 함께 한국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회적 유대감 프로그램을 통한 공교육 진입 과정으로의 편입학, 정서적 지원, 상담활동 진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⁶⁾ 프로그램’ 이름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다(무지개청소년센터 활동보고서 2011).

3.2.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 프로그램은 전체 운영기간이 상·하반기 2회, 각 4개월로 구성되었고 주 5일, 400시간 전일제 수업 형태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어교육, 교우관계 및 자아정체감 형성 프로그램, 생활문화 프로그램 3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무지개 청소년센터 활동보고서 2011). 본 과정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는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기초적인 단계로 총 4주에 걸쳐 한국어 음악, 체육, 미술 수업이 진행된다. 2단계는 학교와 사회의 적응을 돕는 단계로 총 6주 동안 시행된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용어, 학교 한국어는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진로탐색과 현장학습 과정은 한국 생활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3단계는 2단계의 연장선상에서 학교와 사회의 적응을 돕는 단계이며, 한국어교육, 교우관계, 정체성, 편입학 및 검정고시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들에게 가장 필

6)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및 문화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립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재단법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김흥기, 2015: 16-17).

요한 기초 한국어교육의 높은 비중, 교육기간을 일반 학교의 학기 일정과 맞추어 전체적으로 맞추어 이들의 편·입학이 수월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입국초기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부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 현상 때문이다.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규학교에 진학한 후 학업 부진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즈에 맞추어 일상생활의 한국어와 학교생활 한국어를 구분하여 학교 적응에 필요한 단계별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김민지 2017).

나. 교우관계 프로그램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령과 신체적 성숙, 사회적 기술 적응 발달, 책임, 배려, 협동심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이미 자국에서 교우관계를 형성했을 테지만 낯선 환경으로 이주해 오므로 친구들과 이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한 친구들의 존재의 집단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유사한 환경에 노출된 또래들의 동질성과 이질성 문화에서 응집력을 높이며 긍정적인 힘으로 새로운 힘과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다. 자아정체감 프로그램

낯선 국가와 언어로 중도입국 청소년은 새롭게 적응해야 하므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이중 문화에 노출되는 현상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 자아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는 지지자와 강화 자, 공감 자가 필요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정체감을 가족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자국의 문화와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하다.

라. 진로지도 프로그램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입국 초기 학교 밖을 넘어 사회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적성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점을 찾을 찾아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 하게 한다. 이들이 직업 소개와 직업 탐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요건과 필요한 자격증을 안내해 줌으로써 취업의 구체적인 경로를 돕는다.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계를 허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선배 만나기 프로그램은 직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선배를 만나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꿈 지도’ 만들기를 통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교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 체험학습 프로그램

입국 초기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

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사회, 문화교육,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에 필요한 사회기술 훈련을 통하여 자국의 문화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 지식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의 다양한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와 문화적 소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바. 편·입학 지도 프로그램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입국하여 약 6개월 정도의 교육 공백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계민(2011). 그 이유는 한국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 편입·입학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제출하는데 부모님은 어려움을 겪으며, 공교육 기관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비학교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부모에게 입학 절차와 필요한 관련 법률 서류를 지원하고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현장에서는 원활하지 못하므로 입국 초기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보호관련 법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적응과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기관들은 정보 연계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중도입국청소년 공교육 진입의 장벽

공교육 진입 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선행연구,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고찰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의공교육 진입은 각 기관과 학교와의 연계와 행정적지원의 필요성과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법무부(2012년 07월)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를 위한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선은정(2015).에 의하면 법무부는 교육부 다문화코디네이터의 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상담 장소 제공과 홍보 활동, 자녀의 학교 편·입학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교육 등 업무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성공적인 이민자 정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이민부와 교육부, 이민정착 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이민자의 정착을 위해 ① 경제, 사회, 보건, 문화, 교육 및 여가 관련 서비스로의 연계 ② 일상생활 제반에 관한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③ 통·번역서비스 ④ 상담연계 ⑤ 취업 지원 서비스 등 대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둘째, 진입단계로 시·도 교육청은 학력인정과 서류절차 간소화로 정규학교 배치와 단위학교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부분적인 초등·중등시행령 개정으로 서류 간소화와 학력심의를 통한 학력인정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공교육 진입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류방란 외(2012). 연구에 의하면,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 거부되어 교육적 공백 기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장면선 외(2011)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력인증 서류 구비 미비로 인해 정규학교 편입·입학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학력심의회위원회가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바 있지만 설치 및 운영되지 않아 학력인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미국은 주(주)교육부에 연락하고, 해당지역학군(schooldistrict)의 본부실을 찾아가 등록을 하게 되면 거주지 학군 내 배치되며, 프랑스는 이민통합국의 이민자녀 기본정보를 제공받아 각 학구를 중심으로 일선 학교와 연계 하에 연결 한다(선은정 2015).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적 공백과 학력인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도 교육청(교육부)은 행정적 업무구축

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실질적인 학교교육기회 보장으로 학습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과 구축이 필요하다(류방란 2012; 양계민 2013).

셋째, 적응단계로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에 재정된 후 단위학교에서 교과별 학력지원과 한국어 교육지원 그리고 차후 진학과 진로를 위한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선은정(2015)의 연구에서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이 반 배정 받은 후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이들을 위해 제2언어로서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영어수업을 운영하여 필수적인 내용을 습득하도록 한다. 학업성취도의 수준에 따라서 학년을 낮추어 입학한 후 일정 수준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면 졸업하기 위해 월반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이주민의 기회균등을 통해 소외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기회의 제공과 관련해서 연소자에 대한 수습근로자의 지위 강화 규정으로 이주민 2세들이 학업에 얽매이지 않고 일찍부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한승준 2008; 김성직 2013).

성상환 외(2011)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체계적인 수준별 한국어 교육지원, 진학에 언어 구사 능력 부족 및 불안정한 진로 문제로 공교육진입과 진로 준비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국공립 기술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진국은 다문화담당자가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각 역할과 학교와 관련된 공금증을 해결하도록 하며, 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청소년기에 타의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중도입국 청소년은 문화 이해 부족과 언어 문제로 인한 소통의 단절로 문화적 충격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학교 입학에 거부하거나 학교를 이탈하는 등 학교 적응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예비학교와 대안학교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학 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초기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무지개청소년센터 활동 보고서 2011).

예비학교는 입국초기에 정규학교의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 향상, 더 나아가 정서적 안정감 회복을 목표로 설립되었다(무지개청소년센터활동 보고서 2011). 이에 따라 공교육진학 전 예비학교의 운영이 그 목적에 맞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은정(2014)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 한국어 능력향상’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정서적 안정감, 학교규칙 준수, 사교성 발달’ 등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학교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원스톱 서비스”를 공교육진입프로그램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스템의 연계 과정은 다문화코디네이터를 교육청 내 두고 있으며, 이는 입학 상담부터 학교배치, 사후관리까지 입학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10대 후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력체계의 미흡, 까다로운 서류요청, 복잡한 행정적 절차, 학교의 무관심, 형식적인 지원시스템 등도 큰 몫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도 형식적인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가 미숙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과지도, 한국어 교육과 진로진학, 생활지도 등의 프로그램 부재로 공교육 진입 장벽에 부딪히는 요인이다. 정부의 제도와 현장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측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관련 장벽의 사각지대 발생을 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학교 입학 시 비자변경이나, 발급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학교입학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각 각의 해당 정부 기관의 정책(교육부, 법무부)들이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예비학교를 거친 중도입국 청소년은 재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삶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공교육 진입에서 더욱 확장되어 진로에 대한 목표로까지 연결되기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현황과 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체류신분이 다양하여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현황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의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공교육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문화예비학교의 확대가 필요하다.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내에 다니는 57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까지 27.4%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업, 창업, 대학진학 등 여러 진로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민지(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규학교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다문화 예비 학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성직(2013).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과 대안.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 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 논문.
- 김홍기(2015), 국내 중도입국 자녀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9), 2018년도 다문화 학생 통계
- 류방란·오성배(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5-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9-50.
- 무지개청소년센터(2011), 무지개청소년센터 활동 보고서.
- 박자순(2015), 청소년 여가활동과 정서조절의 관계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은정(2014),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관련다문화코디네이터의 현장 경험연구
- 성상환·김명정(2010),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연구
- 양계민·조혜영(2011),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 연구 19-11, 한국청소년학회, 195-224.
- 이기숙(2008), 문화다양성과 가족생활교육, 여성연구논집 19, 신라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 211-242.
- 이병철·송다영(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한국사회복지학

- 회, 131-154.
- 이소라(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업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1),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 계획.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다문화 가족 통계 편람
- 전경숙·이의정(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년 6월.
- 조옥이·박석준(2011),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문화 교육의 방안과 내용: 교육 사례 예시를 통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17-238.
- 조혜영(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한국청소년복지학회, 311-335.
- 좌동훈(2014), 중도입국 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21-1, 한국청소년학회, 97-126.
- 최영권(2012),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정규과정 진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원리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2016), 「중도입국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홍종명(2014),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 어문논집 60, 중앙어문학회, 421-446.
- Brown, H. D.(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Pearson Education, White Plains.

필자 소개

성 명 : 김명자

소 속 : 김해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32-0 4층

전화번호 : 010-5617-0670

전자우편 : kmj0025@hanmail.net

투고일: 2020.01.06 / 심사일: 2020.02.03 / 심사완료일: 2020.02.10.